

빈곤연구의 방법론적 편향성과 질적연구의 활용에 대한 탐색적 연구: 다차원성과 역동성 연구 측면에서*

조준용**

〈 요약 〉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 사회정책에서 다루고 있는 양적방법론 중심의 빈곤연구의 경향과 한계를 살펴보고,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구축에 맞추어 빈곤의 다차원성과 역동성 연구를 위한 질적중단연구의 활용방안을 탐색하였다. 우리나라의 빈곤연구는 초창기의 정태적 분석에 기반한 빈곤실태 및 원인분석으로부터, 1990년대 이후 양적패널자료들의 출현과 함께 빈곤의 다차원성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역동성을 보여주는 종단적 연구로 발전해 왔다. 이러한 양적연구들은 통계적 일반화를 통해 변수들 간의 상관성을 잘 제시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연구들 간의 차별성이 부각되지 못하고, 사용변수의 포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는 양적패널자료가 연구 대상자의 복잡하고 다양한 빈곤과 삶의 경험을 단순한 수치로 축약시켜, 측정 가능한 주요 사건들에 대해 계량적 분석만이 가능하도록 구성된 것에 기

* 이 논문은 2010년도 한림대학교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후 논문 주제와 연계되어 연구자가 참여한 2011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2장의 일부 내용을 수정, 발전시킨 것임.

**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조교수(joyhallym@hallym.ac.kr)

인한 것이다. 이에 비해 질적연구는 비과학성이라는 편견에 맞서 자체의 고유한 인식론을 기반으로, 변화의 맥락이나 개인의 경험과 태도, 행위동기 및 결과, 삶의 통찰을 통한 결과의 적용성 및 논리적 일반화를 제공한다. 또한 질적자료가 양적자료와 결합될 경우 양적연구들에서 나타난 다양한 수치를 보다 생생하게 해석할 수 있고, 측정의 다원화에 기여할 수 있어, 연구방법의 엄격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질적자료가 종단적으로 수집될 경우, 질적 종단연구를 통해 빈곤층의 다차원적이고 동태적인 경험을 변화의 맥락속에서 이해할 수 있어, 보다 풍부한 빈곤 담론과 정책 대안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구축의 의의를 살펴보고, 빈곤의 다차원성과 역동성 연구를 위한 종단적 질문들을 범주화하여 질적종단연구에서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빈곤연구, 방법론적 편향성, 양적방법론, 질적방법론, 혼합방법론, 질적종단연구, 빈곤의 다차원성, 빈곤의 역동성

1. 서론: 사회연구에서 나타난 양적방법론 편향성

사회연구를 위한 연구 방법론은 크게 양적방법론과 질적방법론, 그리고 이 두 방법론간의 통합을 시도하는 혼합방법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Bryman, 1988; Padgett, 1998). 양적 방법론은 실증주의 패러다임과 연역적 사고를 기반으로 표준화된 자료를 사용하여 이론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사회현상과 관련된 변인들 간의 규칙이나 인과성을 일반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질적방법론은 해석학적, 구성주의적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사회현상과 관련된 개인의 경험과 의미를 이해하고, 귀납적 사고에 기반하여 이론을 발견해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러한 방법론에 대한 구분은 사실 단순한 자료수집방법을 뛰어넘는 인식론에 대한 논의를 반영하는 것으로, 어느 한 방법론이 사용하는 자료가 더 과학적이거나 비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Padgett, 1998).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최근까지도 표준화된 자료를 사용하여 연역적으로 도출된 결론을 일반화하는 양적방법론이, 개방적인 체계에서 귀납적으로 도출된 지식을 탐구하는 질적방법론보다 더욱 과학적이라고 인식되었다(Bryman, 1988; Padgett, 1998; Rubin and Babbie, 1995).

이처럼 양적방법론과 과학성을 동일시하는 흐름에 대해, 질적연구자들은 자연과학적 모델을 지향하는 양적방법론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양적연구에서 제시하는 일반화는 통계적 일반화(statistical notion of generalization)에 그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들은 대신 질적방법론을 통해 나타난 발견들은 이론을 향한 논리(logic)를 구성하며, 독자들에게 전이성(transferability)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이론적 일반화(theoretical generalization)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Bryman, 1988; Park and Lee, 2010; Saldana, 2011). 또한, 질적방법론을 옹호하는 학자들은 잘 알려지지 않거나 민감하고 깊이 있는 주제를 다룰 때,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생한 경험과 그 의미를 파악할 때,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와 관련하여 제도라는 블랙박스 내부를 이해할 때, 질적방법론이 유용함을 주장한다(Creswell, 2005; Padgett, 1998).

다른 한편으로는, 양적방법론과 질적방법론을 실용적인 차원에서 통합하여 통째서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는 입장도 나타났는데, 이들의 노력은 혼합방법론(mixed methodology)이라는 방법론적 융합으로 나타나고 있다. 혼합방법론은 양적·질적 측정의 다원화(triangulation)를 통해 결과에 대한 상호확인과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질적방법론을 통해 양적연구의 지표나 척도 구성을 도울 수도 있으며, 질적연구의 관심사인 연구대상자의 관점과 양적연구의 관심대상인 연구자의 관점을 결합가능하게 하고, 양적연구의 수리적이고 확률적으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질적연구가 의미와 해석을 제공할 수도 있는 유용성이 있다(Bryman, 1988; Carvalho and White, 1997). 이처럼 사회연구를 위한 방법론에 대한 최근의 논의들은, 그간 양적방법론만이 과학적 방법으로 인식되어 학계에서 지배적이고 획일적인 지위를 획득한 방법론적 패러다임이 되어버렸다는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의 한편에는, 이제는 어느 정도 성숙해진 질적방법론을 통해 방법론적 편향성을 지양할 뿐만 아니라 인식론적 다원화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양적방법론과의 간극을 이어주는 가교(bridge)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질적방법론 연구자들의 자신감이 표출된 측면도 있다.

우리 사회정책분야에서도 그동안 양적방법론이 과학적 방법의 규칙에 부응하는 지배적 지식기반으로 받아들여졌으며, 그러다 보니 많은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질적방법론을 도외시하여 방법론적 편향성이 존재해왔다(강철희·김미옥, 2003; 김인숙, 2007; 오정수, 2002; 홍경준, 2002). 특히, 사회정책의 거시적인 실천과 개입의 성과에 대한 평

가는 결과를 중시할 수밖에 없어, 양적방법론이 주류를 이루어왔다고 볼 수 있다(홍현미라, 2011). 그러다보니, 연구 대상자들의 심도 깊은 경험과 태도, 행위 동기와 결과 그리고 맥락 등은 사회정책 연구자들의 관심 영역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처럼 사회정책 연구에서 나타난 방법론의 편향성에 대한 반성적 성찰은, 다양한 방법론이 기반한 인식론의 수용과 이에 대한 정합적 접근 및 통합을 시도하는 노력으로 나타나기도 하였고(김미숙, 2006; 오정수, 1997),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질적연구를 통해 방법론적 균형을 추구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기도 하였다(권지성, 2010; 백학영·고미선, 2007; 백학영·조성은, 2012; 이희연, 2009; 홍경준 외, 2009).

그런데 전문화된 방법론적 획일성에 대한 성찰적 연구들은 다양한 사회정책 연구대상들을 한꺼번에 성찰의 대상으로 하여, 연구방법론의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즉, 기존의 양적방법론 편향성을 보여주기 위한 연구들은 사회정책이나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학회지 발표 논문을 검색하여 분석대상을 수집하였고, 주된 분석방법은 빈도분석이며, 편향성의 근거는 질적방법론을 활용한 연구들의 비율이 매우 낮음을 제시하고 있는데(강철희·김미옥, 2003; 김연옥, 1998; 김인숙, 2007; 오정수, 2002; 홍경준, 2002), 이러한 방법에만 머물다보면 자칫 사회정책의 구체적인 연구대상 및 연구주제와 연계된 방법론적 성찰을 도외시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사회정책의 주된 관심 영역이나 주제에 대한 연구 경향을 고찰하여 이와 연계된 연구방법론의 탐색이나, 실천가능한 통합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사회정책의 고유한 관심분야이자 정책과 제도를 통한 거시적인 개입 대상이기도 한 빈곤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원론적인 수준에서 방법론적 편향성을 지적하고 있는 연구가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김교성, 2011), 빈곤연구 주제와 연계된 실천적인 연구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계속 과제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정책에서 다루는 빈곤연구의 주된 연구경향과 연계된 양적방법론 편향성을 살펴보고, 일부 질적방법론을 활용한 빈곤연구를 소개한 뒤, 빈곤연구를 위한 혼합방법론의 적용가능성을 논의한다. 그리고, 2011년도부터 시작된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구축에 즈음하여, 빈곤의 다차원성과 역동성 연구를 위한 질적중단연구의 의의 및 활용방안을 탐색적으로 제시한다.

2. 최근 우리나라 빈곤연구의 경향: 다차원성과 역동성

최근 우리나라의 빈곤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빈곤을 더 이상 단순히 개인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나 물질적 결핍으로만 이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빈곤을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총체적인 삶의 조건과 방식으로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 경제, 심리, 사회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한다(성준모, 2010; 이상록·이순아, 2010; 이주하, 2011; 이현주 외, 2009). 또한, 실현능력 접근과 같이 빈곤의 비화폐적 측면을 강조하여 빈곤을 측정하자는 주장들도 나타나(김교성·노혜진, 2011; 서병수, 2007; 최균·서병수, 2006; 최균 외, 2011), 바야흐로 다차원적인 빈곤에 대한 이해와 측정,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¹⁾.

한편 IMF 위기와 전국적인 패널자료가 나타나기 시작한 1990년 이후에 나타나는 빈곤연구를 살펴보면, 빈곤의 정태적 현황 및 분포뿐만 아니라, 빈곤의 동태적 변화를 다루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전의 정태적 빈곤연구 경향이 지배적이었던 시기에는 횡단적 자료를 사용하여 빈곤실태와 원인을 파악하고, 빈곤층의 요구와 의식을 조사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면²⁾, 최근에는 빈곤의 진입과 지속, 탈피, 특정한 인구학적 집단을 대상으로 한 빈곤지위의 변화와 같은 빈곤의 역동성을 살펴보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궁극적으로 패널자료 구축을 통해 종단 연구가 가능하게 되어, 빈곤의 스냅샷(snapshot)뿐만 아니라 역동성 분석을 통해 빈곤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다³⁾.

¹⁾ OECD(2001:10)은 빈곤을 소비, 식량, 건강, 교육, 권리, 표현, 보장, 존엄, 좋은 일자리와 같은 실현능력과 관련된 다차원적인 박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Kakwani and Silber (ed.) (2007)도 실현능력, 능력부여(empowerment), 참여, 인권 등 화폐 측면을 넘어서는 다차원적인 빈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다. Shipler(2004)도 빈곤을 빈곤선이라는 경제적 개념으로만 이해할 수 없으며, 빈곤이 수반하는 많은 문제들과 더불어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총체적 개념임을 주장한다.

²⁾ 1990년대 이전의 빈곤연구 경향에 대한 논의는 김영모(1989)를 참조

³⁾ Alcock(2004:405)는 빈곤의 정태적 분석과 역동성 분석을 경제학에서 용어를 빌어, 특정 시점의 빈곤의 저장(stock) 분석과 긴 시간에 걸쳐 빈곤 진입 탈퇴를 다루는 유량(flow) 분석으로 비유하기도 하였다.

[표 1] 도시가계조사와 한국노동패널을 사용한 빈곤 역동성 연구

연구자	사용자료	독립변수	종속변수	정책제안
황덕순 (2001)	도시가계조사 (1998-2000)	취업가구원수의 변화(+), 가구원수(-), 여성가구주(-), 가구주연령(-), 가구주교육, 하위직종(-)	빈곤 상태분석, 동태분석: 빈곤탈출(+) 빈곤진입(-)	여성가구주 및 고령자 가구에 대한 특성화된 정책
금재호 김승택 (2001)	한국노동패널 (1998-2000)	여성가구주(-), 가구원수, 가구주연령(-), 가구주 교육(-), 가구 순자산(+)	빈곤결정요인, 동태분석: 빈곤탈출(+) 빈곤진입(-)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고용의 질적 향상
홍경준 (2004)	한국노동패널 (1998-2002)	가구주 연령(노인가구 포함 여부 따라 다름), 가구주(원)학력(+), 취업가구원수(+), 가구주 취업지위(+)	빈곤 이탈 이행률(+)	빈곤근로가구 소득보장 프로그램 확대, 근로빈곤층에 대한 취업기회 제공, 적극적 고용전략, 공공 부문 고용의 질 향상
구인회 (2005)	한국노동패널 (1998-2003)	빈곤진입시기(IMF 이후+), 가구주 연령(중년층 이상 -), 가구주 교육(고졸까지 +), 부양아동(+)	빈곤탈출(+)	장기빈곤 해결 위해 노인빈곤층 집중 여성가구주 위한 대책, 근로소득 향상위한 제도
석상훈 (2007)	한국노동패널 (1999-2006)	독립변수: 빈곤여부(+), 통계변수: 교육수준, 근로시간, 고용상태, 가구근로자수, 가구 유형, 취업가구원수	빈곤의 상태의존(+)	교육, 직업훈련 강화, 초기의 빈곤경험을 막기 위한 정책
강신욱 (2009)	한국노동패널 (1998-2005)	가구원수(-), 가구주 연령(+), 여성가구주(+)	빈곤경험가구의 빈곤 지속성과 반복성에 따른 유형화: 지속빈곤/반복빈곤(+)	빈곤유형에 따른 지원
김은하 (2009)	한국노동패널 (1999-2006)	노동시장 경력, 교육 수준, 직업훈련, 배우자 유무, 가구원수(-), 이전소득(+), 낮은 노동시장지위(-), 자영업(-), 서비스· 판매직(+)	근로빈곤 여성들의 빈곤탈출(+)	교육보다는 좋은 일자리가 더 중요함. 공적 이전이 필요함. 사회보험 적용의 확대.
석상훈 (2009)	한국노동패널 (1998-2007)	가구주 여성·고령노인(+), 과거의 소득수준(+), 향상빈곤계층(+), 가구유형 단독(+)	노인빈곤 결정요인(+)	노인들에 대한 고용 안정과 재취업, 청장년 위험집단에 대한 예방적 정책(교육, 고용안정)

위의 [표 1]에서 나타나듯, 우리나라에서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빈곤 역동성을 살펴본 연구는, 황덕순(2001)처럼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패널 데이터로 연결하여 빈곤탈출과 집입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경우도 있었지만, 1998년부터 시작된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안정적인 구축과 함께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노동패널의 3개년도 웨이브를 사용하여 빈곤 진입과 탈출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금재호·김승택, 2001)를 필두로 하여, 빈곤이탈 이행률을 노인가구 포함 여부에 따라 나누어 분석한 연구(홍경준, 2004), IMF전후 빈곤진입 여부, 층화된 연령 및 교육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빈곤탈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구인회, 2005), 빈곤경험의 상태의존효과를 연구한 연구(석상훈, 2007), 지속빈곤과 반복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빈곤가구를 유형화한 연구(강신욱, 2009), 근로빈곤 여성들의 빈곤탈출에 대한 연구(김은하, 2009), 노인 빈곤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석상훈, 2009) 등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패널자료의 특성을 활용하여, 경제위기 이후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빈곤율의 변화, 빈곤 진입과 탈피 경향, 그리고 빈곤의 반복이나 장기화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어⁴⁾, 빈곤의 동태적 분석을 시도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갖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인구학적 특성, 인적자본 특성, 가구 특성, 노동시장 특성과 같이 제한적인 독립변수들을 사용하여 근로빈곤층, 여성빈곤층, 노인빈곤층과 같은 빈곤 집단들을 대상으로 빈곤 탈출과 진입이라는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유사한 구조가 되풀이되는 것이 발견되기도 한다. 또한 연구 결과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들은 주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속성을 이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였는데, 그 결과 특성화된 노동시장 혹은 탈빈곤 제도의 도입에 대한 제안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한국노동패널에 이어서 2006년에 등장한 한국복지패널은 저소득층의 인구학적 특성이나 가구특성, 노동시장 경험뿐만 아니라 건강, 의료, 주거, 생활여건, 복지제도, 인구학적 대상에 따른 설문, 그리고 인식과 전망에 대한 설문도 포함하고 있다. 그 결과, 빈곤층의 실태변화와 같은 동태성 파악뿐만 아니라, 탈빈곤 제도의 경험과 효과성에 대한 정보 획득, 욕구나 인식의 변화의 추적도 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빈곤의 역동성뿐만 아니라, 빈곤과 삶, 그리고 제도와 관련된 다차원적인 빈곤의 경험과 속성을

⁴⁾ 서구의 경우 역시 양적 종단자료의 구축을 바탕으로 개인, 가족, 노동시장 특성과 빈곤의 진입과 유지기간, 탈퇴와 같은 빈곤의 역동성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나타났고, 이는 탈빈곤정책의 발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Millar, 2007).

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빈곤에 대한 다차원적 이해를 시도하여 빈곤연구와 관련된 변수의 확장을 꾀한 연구들은, 주거 빈곤과 아동발달 및 가족생활(임세희, 2010; 임재현, 2011), 시간과 소득의 이중빈곤(노혜진·김교성, 2010), 빈곤 혹은 관련된 서비스와 가족 갈등(정선영·정현숙, 2011), 요보호 가구원 부양과 가구빈곤(진선미 외, 2011), 빈곤층의 소비패턴(정원오·이선정, 2011)에 대한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더 나아가 자산빈곤과 빈곤의 지속(석상훈, 2011), 빈곤과 우울의 종단적 고찰(성준모, 2010), 빈곤지위 변화와 정신건강(이상록·이순아, 2010), 탈수급 전후 의료서비스 차이(유태균·이선정, 2011), 근로능력에 따른 탈수급 결정요인(안서연 외, 2011) 등의 연구들은, 다차원적 빈곤에 대한 이해 및 관련 정책의 다양한 측면을 역동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한국복지패널에서 빈곤연구와 관련된 변수들의 확장은 빈곤 역동성뿐만 아니라 다차원적인 빈곤, 그리고 제도의 효과성과 관련된 탐색을 가능하게 한 측면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한국복지패널을 사용한 빈곤연구들 역시 2차 자료를 사용한 양적연구라는 측면에서 향후 패널자료가 제공하는 변수들의 사용이 포화되면, 지속적인 빈곤연구 주제의 확장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3. 빈곤연구에서 양적방법론 편향성의 한계 및 질적연구 도입의 필요성

전술한 바와 같이 최근 들어 빈곤의 다양한 측면을 역동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나타나는 것은, 빈곤연구에 있어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양적 패널자료를 활용한 연구들이 갖는 다양한 장점들을 포함하는 동시에, 양적방법론 편향에 따른 본질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기도 하였다. 우선 양적자료는 결국 측정 가능한 사건들에 대해서 계량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질문을 단순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구축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대상자의 삶과 경험이 몇 가지 데이터로 환원되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Alcock, 2004). 그러다 보니, 양적방법론만을 통해 빈곤의 다

차원성과 역동성과 관련된 심도 깊은 개인의 경험과 태도, 행위 동기 및 결과, 맥락, 삶의 통찰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이와 같은 양적자료의 특성은 복잡하고 다양한 빈곤 현상 및 관련 경험들이 결국 통계수치로 축약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수많은 패널자료의 또 다른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확률과 통계에 근거하여 수리적 일반화를 목표로 하는 양적방법론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결론이나 정책대안 개발에서 차별성 있는 다양한 연구가 나타나지 못하는 위험도 증가하게 된다. 앞서 빈곤의 역동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도 이러한 측면에서 차별성이 부각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김교성(2011)은 “빈곤실태 연구는 그것이 스냅샷인지 혹은 동영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연구가 공통적인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빈곤연구가 정태적 분석을 시도하든, 동태적 분석을 시도하든, 거의 모두가 인구학적 특성, 가구 특성, 노동시장 특성 등이 주요 변인으로 나타나며, 각각의 분석결과에서도 큰 차별성이 부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⁵⁾.

더 나아가, 시간이 지나면 궁극적으로 양적 패널자료가 제공하는 변수들에 대한 활용도가 포화상태에 이르게 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2차자료인 양적 패널자료를 사용한 연구들로부터 변수의 개방을 통한 지속적인 빈곤연구 주제의 확장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향후 변수의 활용이 어느 정도 포화상태에 이르면, 연구자들은 무엇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탐구하기보다, 기존 연구에서 사용되지 않은 변수를 찾아나가는 방식으로 변수의 확장을 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빈곤의 다차원성과 역동성 연구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갖고 있는 한계의 근원은, 양적자료에 대한 분석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양적방법론의 획일성에 기인한다는 측면이 크다는 것이다.

사회정책연구에서 양적방법론에의 편향에 대한 문제제기는 앞서 제시하였듯이, 여러 연구를 통해 지적된 바 있는데(강철희·김미옥, 2003; 김인숙, 2007; 오정수, 2002; 홍경준, 2002), 이러한 논의는 빈곤연구에 대해 적용하더라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⁵⁾ 물론 같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사용한 연구라 할지라도, 변수의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향후 메타분석의 적용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이미 사회정책분야에서 복지정책이나 사회복지실천 프로그램 개입의 효과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통합해서 영향력을 살펴보려는 메타분석이 나타나고 있다(Greenberg and Cebulla, 2005; 이상균, 2000).

다. 즉, 빈곤 문제에 대한 대부분의 양적연구들은 여전히 빈곤층의 시각보다는 연구자 중심의 분석을 시도하며, 빈곤층이 처해 있는 환경이나 사회구조적 맥락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빈곤이라는 사회현상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와 사례를 다루지 못하고 있다(김교성, 2011)⁶⁾. 더 나아가 이러한 양적방법론으로의 편향성은 실증주의 이외의 지식기반에 근거한 빈곤문제에 대한 새로운 담론 형성을 이끌어내지 못해, 인식론의 다원화를 꾀하기 힘들게 할 수도 있다고도 볼 수 있다⁷⁾.

이러한 상황에서 질적 자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질적방법론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질적연구에서는 양적연구에 비해 빈곤층의 삶의 경험과 의미, 행위의 맥락, 그리고 빈곤 정책 개입과의 상호작용도 보다 심도 깊게 잘 드러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기존 통계나 사회적 편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빈곤 현실에 대한 통찰과 심도 깊은 이해를 제공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Edin and Lein(1997)은 Making Ends Meet 이라는 저서에서, 미국의 싱글맘들에 대한 질적연구를 통해, 복지수급자들이 삶을 유지하는 방법과 경험을 통찰력 있게 전달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미국 통계국의 빈곤에 대한 양적 측정결과와는 별도로 싱글맘들이 생존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는 방법과 현실이 존재한다는 것과, 빈곤선이 이들의 욕구를 얼마나 과소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Seccombe(1999)은 So You Think I Drive a Cadillac? 이라는 책을 통해, 미국의 여성 복지수급자들의 복지개혁에 대한 인식과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복지수급 여성들이 고급 캐딜락 승용차(Cadillac)을 타고 다닌다는 이미지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그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었다. 즉, 복지납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사용되는 캐딜락 자가용이 얼마나 허구적인 이데올로기였음을 밝힐 수 있었다는 것이다. Fine and Weis(1998)은 The Unknown City 에서, 23세에서 35세 사이의 가난하게 일하는 청년들에 대해, 지역별, 인종별, 성별에 따른 문화기술지 연구(ethnography)를 실시하여, 젊은 X세대로만 알려져 있는 이들이 실상에서 겪는 빈곤, 소외와 차별, 분노, 희망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Newman(1999)은

⁶⁾ 김교성(2011)은 1998년부터 2010년까지의 주요 학술지에 수록된 246편의 빈곤연구를 분석하여, 그중 44편을 질적연구로 분류하였다. 이들 중 빈곤정책의 특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가 30편이고, 실제 빈곤층이 연구 동반자로 참여한 질적연구는 14편이었다. 그나마 빈곤층이 참여한 연구 중에서도 단순히 심층면접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의 표현을 인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구체적으로 질적연구 전통에 따른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한 연구는 5편에 불과하였다.

⁷⁾ 김인숙(2007)에 의하면, 한국의 사회복지 연구에서 질적연구는 지배적 지식기반을 비판하고 대항적 담론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은 빈곤연구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No Shame in My Game 에서 도시 저임금 노동자들과 구직자들에 대한 질적연구를 통해, 실직자보다 더 빈곤한 계층은 근로빈곤층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이들이 경험하는 노동시장에서의 여러 장벽들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발견은 수급권자보다 더 힘든 것이 차상위와 근로빈곤층이라는 우리의 역설적인 현실에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 Shipler(2004) 역시 *The Working Poor: Invisible in America* 에서 근로빈곤층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수백 만 명의 미국인들이 번영 속에 살 때에,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의 삶의 경험을 통찰하였고, 이를 통해 빈곤이란 경제적·심리적·개인적·사회적 측면을 포함하며, 현재와 과거가 맞물린 경험임을 강조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획일적인 양적방법론에의 편향성에 대한 사회정책 학계의 성찰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질적 자료를 사용한 빈곤연구들이 시도되었다. 예를 들어, 빈곤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목표로 하는 연구에서도 절대빈곤층의 삶과 경험과 관련된 사례를 제공하기도 하였고(박순일, 1994; 윤석범, 1994), 문학작품에서 나타난 빈곤층의 의식을 제시하기도 하였는데(윤석범, 1994), 엄밀히 말해서 이러한 방법들은 전통적인 질적방법론을 적용한 연구라기보다는 질적 자료를 사례로 제시하여 소개하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다양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일방적 분석보다는 빈곤층의 인식과 목소리를 통해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타나고 있다(권지성, 2008; 김교성, 2011; 백학영, 2006; 이은주, 2008). 홍현미라(2011)는 질적연구를 통해 사회복지의 거시적인 실천과정을 평가할 수 있고, 참여자의 시각에서 사회복지 실천과정의 작동 기제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은, 빈곤연구에서도 질적방법의 도입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을 위해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블랙박스로서 빈곤정책의 작동기제나 효과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함의를 제공한다⁸⁾. 질적방법의 이러한 정책적 활용은 자활사업에 참여한 여성가구주의 경험을 중심으로 자활사업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전망에 대한 연구(백학영·고미선, 2007),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과정에서의 전략적

⁸⁾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를 저술한 Deborah Padgett(1998)도 질적연구는 조사대상자의 인식과 생생한 경험을 찾아내고, 프로그램, 혹은 개입이라는 “블랙박스” 내부로 들어가 보는 것이라고 하였다.

선택에 대한 연구(백학영·조성은, 2012),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인 희망플러스
스통장 사업을 평가한 연구(권지성, 201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사회적 배제
경험에 대한 연구(이희연, 2009),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공무원들의 경험과 인
식의 분석을 통한 공공부조 현장실태보고(홍경준 외, 2009)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편, Carvalho and White(1997)는 빈곤연구에 있어서, 양적방법론과 질적방법론 중
어느 하나의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대개의 경우 두 가지 연구방
법론이 서로 간과하고 있는 질문들을 다룰 수 있으므로, 이를 혼합하는 연구방법론이
유용하다고 한다. 특히, 질적연구에서는 누가 가난한지에 대한 질문보다는 왜 가난한
지,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질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빈곤정책의 수
립 및 평가 등에서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Barrett(2004) 역시 양적자료에
기반한 빈곤의 역동성 연구를 통해 단순히 재생 가능한 결과들을 생산하는 것에서 멈추
지 않기 위해서는, 질적방법론의 연계 및 혼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어떤 대상에
게, 어떤 시기에, 어떠한 규모와 내용을 가진 개입을 시도할 때, 삶의 기준의 향상을 가
져올 것인지에 대해서 인과적인 분석을 해야 하는데, 이는 양적방법론과 질적방법론의
혼합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처럼, 혼합 연구방법
론을 통해 동일한 현상에 대해 다양한 출처의 다차원적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게 된다
면, 통계수치에 생명을 불어 넣어주고, 교차 확인(cross-check)을 통해 측정의 다원화
(triangulation)를 추구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Jick, 1979; Barrett, 2004). 더 나아가, 양적
· 질적연구방법론의 연계 또는 혼합은, 양적자료의 설문을 질적 자료와 연계되도록 설
계할 수도 있고, 질적 분석을 통해서 빈곤과 관련된 지표들을 개선할 수도 있으며, 서로
상대방의 발견에 대해서 인증(confirming), 반박(refuting)하는 과정을 통해 풍부한 설명
을 가능하게 한다(Carvalho and White, 1997).

최근 들어 질적연구 방법을 빈곤 정책 평가를 위해 혼합적으로 사용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 혼합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수행된 빈곤의 역동성 연구들을 살펴보
면, 질적방법론이 빈곤의 역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에 대해서 특별한 통찰
의 기반을 제공하고, 그러한 과정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제공하며, 사회적 관계의 역할
에 대한 세밀한 관찰까지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Adato et al.,2006; Lawson et al.,
2006; Lawson et al., 2008).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해 수급자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면접을 시도한 연구(이태진 외, 2007, 2008), 수급권자의 수급 관련 인식, 가족관계 및 근로활동에 대한 인식과 전망 등의 사회심리적 특성을 탐구하고자, ISSP를 사용한 양적 비교연구와 더불어 심층면접을 활용한 연구(이현주 외, 2009) 등이 양적평가연구를 보완하는 질적방법론을 사용한 예로 볼 수 있다.

4. 빈곤연구에서 질적연구 확대를 위한 질적패널 구축과 질적종단연구의 의의

이처럼 최근 들어 질적방법론이 빈곤연구 영역에서 일부 활용되고 있다고 해서, 양적연구가 지닌 모든 한계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Carvalho and White, 1997). 앞서 제시한 것처럼, 이러한 두 가지 연구방법론의 차이는 상호 보완을 통해 보다 종합적인 연구방법론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⁹⁾. 지금까지의 빈곤과 관련된 질적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면,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매우 제한된 영역에서 소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빈곤의 다차원성과 역동성이라는 최근의 연구경향에 비추어 본다면, 질적연구가 향후 빈곤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시도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최근 들어서 빈곤의 다차원성에 대한 질적연구는, 삶의 실현가능능력에 초점을 두어 빈곤을 개념화하여 세대간 경험을 질적으로 분석한 연구(김교성·노혜진, 2011)나, 인간다운 삶의 실현 측면에서 빈곤층을 위한 문화복지라는 개념 정립을 실천가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시도한 연구(최종혁 외, 2009) 정도를 꼽을 수 있다. 그 반면, 빈곤의 역동성과 관련된 분석에서 질적방법론을 활용한 연구 성과를 발견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⁹⁾ 오정수(1997)는 실증주의의 장점과 비실증주의를 결합하는 형태로 나타난 인식론적인 다원주의를 긍정적인 변화의 방향으로 보고, 양적방법과 질적방법의 효과적인 정합은 연구목적과 연구대상의 다양성에 따라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무엇보다도 질적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과 종단적 연구에 필요한 질적패널자료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구축된 기존의 양적패널자료들은 아직 세대를 뛰어넘는 자료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대간 빈곤의 역동성을 보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서(김교성, 2011), 이에 대한 대안적 접근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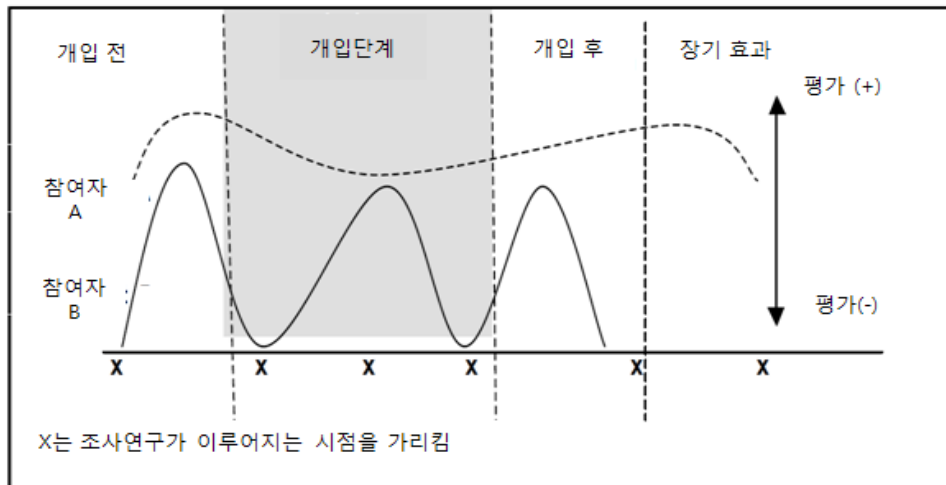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한국복지패널과 연계된 질적 패널자료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주도로 2011년부터 구축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질적종단연구를 통한 빈곤의 다차원성과 역동성 연구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전에 시도하지 못했던 질적종단연구를 통해 개인의 관점과 주관적인 경험을 이해하고, 변화되는 상황에 대한 적응과정과 경로를 파악할 수 있어(Millar, 2007), 빈곤연구 발전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Millar(2007)는 양적 패널자료를 활용한 빈곤의 역동성 관련 연구가 많이 나온 것처럼, 질적연구를 통해서도 빈곤의 역동성에 대한 연구에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그는 질적종단연구에 기반한 빈곤 역동성 연구들은 지위 변화(transitions), 기간(durations)과 경로(trajectories)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복잡하고 다양한 대상자들의 각기 다른 경험들을 잘 보여주고, 이를 통해 이론적, 정책적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Farrall(2006)은 질적연구를 종단적으로 수행할 경우, 양적인 종단 연구나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일회성 조사에 의한 질적연구에 비해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어떻게 사회문제가 개인의 문제로 되어 가는가에 대한 과정을 탐색할 수 있다. 둘째, 거시적 절차나 사건을 개인의 삶과 환경에 접목시킬 수 있다. 셋째, 프로그램 개입이 효과가 있었는지의 여부뿐만 아니라, 개입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또한 왜 그런지에 대한 맥락적인 분석과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다. 넷째, 개입 결과를 개인적 차원에서 볼 수 있다. 다섯째,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응답자의 삶의 다양한 측면과 관련된 변화들과 다양한 감정의 흐름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계량적으로 의미가 없고 일반화시킬 수 없는 소수의 다양한 응답들이 사장되는 기존의 양적연구에서와 달리 이들 사례로부터 이론적 성찰을 도출할 수 있다.

Molloy et al.(2002)는 질적종단연구를 사용하면, 변화에 대해서, 왜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변화가 발생했는지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이들은 청년을 위한 뉴딜(New Deal)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하여 질적연구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사례는 질적연구를 종단적으로 실시했을 때의 유용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아래 [그림 1]은, 뉴딜의 구직이나 기본 기술개발과 관련된 경험에 대해 참여자 A, B의 평가 점수를 개입 단계에 따라 연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때 프로그램 참여의 전 과정에 걸쳐 평가점수가 고르게 나타나는 A에 비해, 평가점수가 단계 내에서 위아래로 큰 격차를 보이는 B의 경우, 스냅샷만으로는 프로그램의 경험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게 된다. 질적종단연구는 이러한 경우에도 경험의 평가와 관련된 고점과 저점을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러한 변화를 설명해줄 수 있다는 유용성이 있다. 실제 연구에서 B의 경우 이러한 고점과 저점이 나타난 것은 뉴딜 참여자의 사생활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A의 경우처럼 극적인 변화가 없는 경우에도, 질적종단연구는 왜 이 참가자가 완만한 평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어, 프로그램 실행과 정책 입안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림 1] 종단적 연구에서의 시간에 따른 변화의 탐색



출처: Molloy et al.,2002:12 에서 재인용.

이와 같은 질적중단연구의 특징들은, 앞서 제시했던 빈곤 역동성에 대한 양적연구가 갖고 있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으며, 또한 시간에 따른 빈곤경험의 변화와 다양한 삶의 경험에 대한 고찰을 통해 보다 다차원적인 빈곤에 대한 담론을 제기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질적연구가 보다 포괄적으로 양적연구와 연계되어 함께 사용된다면 더욱 강력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포함하고 있는데(Corden and Millar, 2007), 이는 마치 사람이 한 다리로는 도움 없이 서있을 수는 있지만, 앞으로 나가려면 두 다리가 필요하다는 비유로도 설명할 수 있다(Barrett, 2004).

이러한 논의를 우리나라의 패널자료를 활용한 빈곤연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양적·질적 연계 패널자료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적방법론과 질적방법론은 빈곤의 다차원성 혹은 역동성과 같은 하나의 연구 영역에 대해 다른 시각과 목적의 연구 질문들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들이 협력적으로 이루어질 때, 빈곤의 역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계, 그리고 경험과 과정에 대해 보다 풍부한 이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질적방법론에 의해서 구축된 패널자료와 이를 바탕으로 수행된 연구는 기존의 양적 패널 연구에서 나타난 다양한 수치를 보다 생생하게 해석 가능하게 하고, 측정의 다원화(triangulation)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서로의 발견에 기초하여 향후 각자의 연구주제와 질문을 수정 보완하여 나가는 실용적 측면에서도 기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빈곤정책 평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상호 인증과 반박과정을 거쳐 빈곤정책 수립을 위한 통찰력의 기반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러한 연구방법론 연계 및 혼합은 원인과 과정, 그리고 결과간의 연결 고리(links)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연구자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입안자에게 매우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수도 있다(Corden and Millar, 2007). 물론 연구자들도 빈곤층의 변화하는 목소리(voice)에 기반한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 차별성있는 정책제안이 보다 용이할 수 있다. 질적 패널자료 역시 패널의 손실(attrition), 패널 조건화(conditioning)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양적방법론과 질적방법론을 연계할 수 있는 다리를 놓을 수 있다는 데에 더 큰 의의가 있다(Ruspini, 1999).

5. 빈곤연구에서 질적중단연구 활용을 위한 질문 영역과 연구문제

한국복지패널과 연계한 질적 패널자료를 활용한 빈곤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향후 어떤 것들을 질문할 것인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양적 패널조사와 연계되어 상호간에 보완적인 질문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질적중단연구의 특성이나 장점이 잘 나타날 수 있는 질문들을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질적중단연구 질문들의 유형을 종합하여 포괄적으로 제시한 Saldana(2003)의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질적중단연구를 통해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참여자의 인식과 인간의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들을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종단적으로 구축된 질적 패널자료에 대한 분석과정에서 맥락의 틀을 만드는 질문(framing questions), 둘째, 변화에 대한 기술적인 질문(descriptive questions), 셋째는 다양한 변화와 관련된 분석적이고 해석적인 질문(analytic and interpretive questions)이다.

먼저, 종단적으로 구축된 질적 자료에 대한 분석과정의 틀을 만드는 질문들은, “구축된 자료의 풀(pool)이 다음에 어떻게 달라지는가? 언제 변화가 일어나는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개입적 조건은 무엇인가? 시간에 따른 변화의 역동성은 무엇인가? 참여자의 변화에 대한 사전 진술들이 자료 분석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변화에 대한 기술적인 질문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무엇이 증가하거나 나타나는가? 무엇이 축적되는가? 어떠한 돌발적인 것들이 생겨나는가? 무엇이 줄어들는가? 무엇이 지속되는가? 무엇이 특징적인가? 무엇이 없어지는가?”를 포함한다. 끝으로 변화와 관련된 분석적이고 해석적인 질문들은, “어떤 변화들이 경과에 따라 서로 연결되는가? 어떤 변화들이 본연적인 인간 발달이나 구성된 사회적 과정에 대립 혹은 화합하는가? 무엇이 시간 경과에 따른 국면, 단계, 순환 등과 같은 리듬인가? 무엇이 연구를 관통하는 주제인가?”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 연구자들에게는 ‘자료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rise above the data)’ 통찰을 위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Farrall(2006) 역시 종단적 차원에서 구축된 질문과 질적자료를 활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및 관련된 과정을 탐색하고 측정할 수 있다고 하며, 다음과 같은 종단적 질문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웨이브(wave) 간 어떠한 차이가 발생했는가? 둘째,

언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어떠한 변화가 먼저 혹은 동시에 일어나는가? 셋째, 돌출되는 사건들이 있는가? 넷째,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무엇이 증가하고 감소하였는가? 다섯째,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무엇이 없어졌는가? 여섯째, 변화와 변화의 시기에 영향을 주는 맥락적인 과정은 무엇인가? 일곱째, 어떠한 변화들이 인간의 성장 과정에 도움을 주거나 혹은 가로막는가? 여덟째, 변화들이 응답자들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아홉째, 변화가 실제적인가 아니면 상징적인가?

이와 같이 제시된 질적 패널조사에서의 종단적 질문의 유형들은 향후 빈곤의 다차원성과 역동성 연구를 위한 질문 내용의 개발뿐만 아니라 질적방법론을 활용한 빈곤연구의 방향성에도 많은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표 2]는 Saldana(2003)와 Farrall(2006)의 종단적 질문들을 Saldana의 대범주를 참고하여, ‘변화에 대한 기술’, ‘변화와 역동성의 맥락’, ‘변화의 의미와 해석’으로 재분류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류에 따라,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에서 빈곤의 경험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종단적 질문들의 범주들을 예시적으로 제시하여, 빈곤연구 주제와 관련한 질적 종단 연구의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르면 변화에 대한 기술적인 질문들은 빈곤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 빈곤 지위의 변화, 빈곤 제도와 개인 간의 상호작용 변화에 대한 질문들을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은 다차원적인 빈곤의 발견, 빈곤 경험의 변화에 대한 기술, 빈곤 지위의 변화 및 빈곤 제도와 상호작용 변화, 빈곤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경험 연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변화와 역동성의 맥락에 대한 질문들은, 기술적 질문들에서 나타난 다양한 경험들 및 변화의 원인과 맥락적 과정을 파악하는 질문, 일상생활과 생활영역 및 가족관계와 같이 변화의 맥락이 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의 변화를 파악하는 질문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질문들은 다차원적 빈곤 경험의 맥락이나 빈곤 역동성의 맥락을 이해하는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변화의 의미와 해석에 대한 질문들은 빈곤 경험의 의미, 빈곤 지위 변화나 빈곤 제도와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인식의 변화, 환경적 요인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인식의 변화 등에 대한 질문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질문들은 빈곤의 경험에서 드러나는 인식과 변화의 의미를 파악하는 연구, 빈곤 역동성의 맥락의 기저에 숨겨있는 의미들을 해석하여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연구,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빈곤 정책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는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 질적종단연구를 위한 질문의 범주들과 연계된 가능한 빈곤연구 영역

질문의 범주	Saldana(2003)	Farrall(2006)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질문 영역	가능한 빈곤연구 문제
변화에 대한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무엇이 증가하는가? • 무엇이 축적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떠한 돌발적인 것들이 생겨나는가? • 무엇이 없어지고, 줄어들고, 지속되는가? • 무엇이 특징적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출되는 사건들이 있는가? •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무엇이 증가하고 감소하였는가? •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무엇이 없어졌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곤 관련 다양한 경험-빈곤 경험, 빈곤의 심리사회적 영향, 탈빈곤 노력 ▶ 빈곤 지위의 변화 - 수급권 신청 ▶ 빈곤 제도와의 상호작용 변화 - 수급권 변화/고용 관련 제도의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차원적 빈곤 발견 ▶ 빈곤 경험의 변화 ▶ 빈곤 지위/탈빈곤 제도와 상호작용 변화 기술 ▶ 탈빈곤 제도의 효과성
변화와 역동성의 맥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축된 자료의 풀(pool)이 다음에 어떻게 달라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제 변화가 일어나는가? •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개입적 조건은 무엇인가? • 시간에 따른 변화의 역동성은 무엇인가? • 참여자의 변화에 대한 사전 진술들이 자료 분석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웨이브간 어떠한 차이가 발생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어떠한 변화가 먼저 혹은 동시에 일어나는가? • 변화와 변화의 시기에 영향을 주는 맥락적인 과정은 무엇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곤원인, 상태변화의 원인, 맥락적 과정 - 빈곤원인 - 빈곤경험, 지위변화의 맥락적 과정 - 빈곤제도와 상호작용 변화의 맥락적 과정 ▶ 환경적 요인 변화 - 일상생활/생활영역/가족관계 변화의 맥락적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차원적 빈곤 경험의 맥락 이해 ▶ 빈곤 역동성의 맥락 이해
변화의 의미와 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변화들이 서로 연결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변화들이 본연적인 인간발달/구성된 사회적 과정에 대립 혹은 화합하는가? • 무엇이 시간 경과에 따른 국면, 단계, 순환 등과 같은 리듬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엇이 연구를 관통하는 주제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떠한 변화들이 인간의 성장 과정에 도움을 주거나 혹은 가로막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화들이 응답자들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 변화가 실제적인가 아니면 상징적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곤 경험의 의미 ▶ 빈곤 지위 변화/빈곤 제도와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인식의 변화 ▶ 환경적 요인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인식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곤 관련 경험 변화의 의미 파악 ▶ 빈곤 역동성 맥락의 기저에 숨겨진 의미 해석 ▶ 빈곤 정책 함의 제공

본 연구자가 참여하였던 1차년도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구축 사업의 경우, 양적 패널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기초 질문들로 주로 구성이 되었다. 이에 비해 2차년도에 이루어진 질문들은 보다 시간에 따른 차이와 변화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맥락들과, 변화의 의미를 파악하는 질문들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다른 패널자료들과 마찬가지로, 질적패널이 제공하는 두 번의 웨이브만으로 빈곤 경험의 변화가 감지되기란 쉽지 않았다. 그렇지만, 변화가 없었다는 것 역시 질적종단연구의 중요한 연구주제가 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무엇보다,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조사를 거치면서 나타나는 빈곤층의 삶, 그들의 인식에 대한 이해, 탈빈곤을 위한 노력, 그리고 그것이 갖는 맥락과 의미들은 향후 질적종단연구를 위한 매우 소중한 기초선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6. 결론

본 연구는 사회정책에서 다루고 있는 빈곤 관련 연구경향에서 나타난 방법론적 편향성과 한계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의 모색으로 질적방법론의 활용방안과 예시를 다각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빈곤의 다차원성과 역동성 연구를 위한 질적종단연구의 의의를 논하고, 종단적 질문들과 연계된 빈곤연구 분야를 탐색적으로 범주화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사회정책에서 과학성이라는 것은, 재생 가능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여 정책적 논의를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대상에게, 어떤 시기에, 어떠한 규모와 내용을 가진 개입을 시도할 때, 삶의 기준의 향상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인과적인 분석까지도 포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풀어나가는 과정이었다. 이를 통해, 연구자 관점의 분석을 탈피하여 빈곤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블랙박스로서의 빈곤정책의 작용기제를 분석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면, 보다 창의적인 정책 대안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아직 질적패널자료 구축이 초기 단계인 상황에서, 실제 활용사례를 제시하지 못하고, 향후 활용 가능한 범주의 탐색에 그치고 만 것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향후, 본 연구의 탐색적 노력이, 사회정책 연구자들의 질적 연구를 위한 이론적 배경과 문제형성 과정에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들어 빈곤을 연구하는 정책연구기관이나 개인 연구자들이 서서히 질적방법론이나 혼합방법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또한 향후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이 활성화되면, 질적중단연구를 통한 다양한 빈곤 경험 및 빈곤 지위 변화의 맥락과 의미의 해석을 제공할 가능성도 커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방법론적 균형을 위한 노력들이 향후 우리나라 사회정책에서 다루는 빈곤의 담론과 다양한 정책 대안의 개발에 기여를 할 것을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 강신욱 (2009). 빈곤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고려한 빈곤정책의 방향. *경제발전연구*, 15(2), 263-286.
- 강철희·김미옥 (2003). 한국 사회복지학 연구방법론에 대한 분석과 고찰-질적 연구방법의 유용성 제고를 위한 논의. *한국사회복지학*, 55, 55-81.
- 구인회 (2005). 빈곤의 동태적 분석: 빈곤지속기간과 그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57(2), 351-374.
- 권지성 (2010). 저소득층 자산형성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평가연구: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2(3), 193-218.
- 권지성 (2008). 쪽방 거주자의 일상생활에 대한 문화 기술지. *한국사회복지학*, 60(4), 131-156.
- 금재호·김승택 (2001). 빈곤의 규모와 이행과정. *연세경제연구*, 8(2), 511-539.
- 김교성 (2011). 사회정책 빈곤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사회정책*, 18(1), 43-82.
- 김교성·노혜진 (2011). 빈곤의 세대간 탈피 경험. *사회복지연구*, 42(1), 243-278.
- 김미숙 (2006).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의 통합에 대하여. *교육사회학연구*, 16(30), 43-64.
- 김미옥 (2007). 한국 사회복지학에서의 질적 연구 경험에 관한 연구: 엄격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9(4), 163-189.
- 김영모 (1989). 빈곤연구의 동향과 과제. *사회과학연구*, 3, 31-61.
- 김연옥 (1998). 우리나라 사회복지학 연구경향에 관한 연구-한국사회복지학에 실린 경험분석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35(1998, 8), 85-105.
- 김은하 (2009). 근로빈곤층 여성의 빈곤탈출 결정요인: 인적자본, 가구특성, 노동시장 지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6(3), 239-268.
- 김인숙 (2007). 한국 사회복지 질적 연구: 동향과 의미. *한국사회복지학*, 59(1), 275-300.
- 박능후·여유진·김계연·임완섭·송연경·박소연 (2003). 탈빈곤정책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소득보장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순일 (1994). 선진경제의 문턱에서 본 한국의 빈곤현실과 사회보장. 서울: 일신사.
- 백학영 (2006). 저소득 독거노인의 빈곤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사회복지연구*, 31(가을), 5-39.
- 백학영 (2007).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과 노동시장 진입 전망에 관한 연구: 여성가장의 자활사업 참여경험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0, 83-114.
- 백학영·조성은 (2012).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경로와 자활과정에서의 전략적 선택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2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서병수 (2007). 한국의 다차원적 빈곤 분석: 실현능력접근. *사회복지정책*, 28, 199-232.
- 석상훈 (2007). 빈곤의 지속-상태의존성 검증. *사회보장연구*, 23(3), 79-99.
- 석상훈 (2009). 노인빈곤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패널자료를 활용한 분석.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회보장학회, 159-179.

- 여유진·김미곤·김태완·양시현·최현수 (2005).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 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오정수 (1997). 사회복지학 접근방법의 이중구조와 종합적 접근 전망. 상황과 복지, 2, 131-158.
- 오정수 (2002). 한국 사회복지학계 연구방법론에 대한 반성적 고찰. 상황과 복지, 13, 33-46.
- 윤석범 (1994). 한국의 빈곤. 서울. 세경사.
- 이상균 (2000). 사회복지실천프로그램에 대한 메타분석: 집단프로그램의 효과크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0(2000.2), 131-156.
- 이상록 (2011). 빈곤층의 물질적 궁핍, 실패와 영향요인 분석. 사회복지연구, 42(3), 233-265.
- 이상록·백학영 (2009). 빈곤의 동태적 변화에의 지역간 차이 분석: 수도권과 지방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0(4), 181-206.
- 이상록·이순아 (2010). 빈곤지위의 변화에 정신건강이 미치는 영향: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1(4), 277-311.
- 이원진 (20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동태의 특성 및 수급탈출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2(3), 5-29.
- 이은주 (2008). 근로빈곤층의 삶의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근거이론 분석. 사회복지정책, 34, 331-356.
- 이주하 (2011). 빈곤에 대한 정치사회학적 이해. 한국사회정책, 18(1), 11-42.
- 이태진·김태완·최현수·김문길·우선희·박경희·박은영·전세나 (2008).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기반조성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수급자 및 전담공무원 대상 질적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태진·홍경준·김태완·최현수·김문길·김선미·김사현·최옥금·우선희·김효진·강성민 (2007). 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 수급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상 질적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현주·김미곤·노대명·강석훈·손병돈·유진영·임완섭 (2006). 우리나라 빈곤실태와 정책적 함의 -구조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현주·안서연·박경희 (2009). 가난한 사람들의 일과 삶: 심리사회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희연 (200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의 사회적 배제 경험에 관한 문화기술지 연구. 사회보장연구, 25(1), 281-315.
- 정원오·이선정 (2011). 빈곤계층의 소비패턴에 관한 연구: 2007년과 2008년의 변화 비교. 사회복지연구, 42(1), 305-331.
- 최균·서병수 (2006). 빈곤연구의 대안 패러다임으로서 Sen의 가능성접근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개념 측면과 측정 측면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5, 333-362.

- 최균·서병수·권종희 (2011). 차원계수방식에 의한 다차원적 빈곤 측정. *한국사회복지학*. 63(1), 85-111.
- 최종혁·이연·안태숙·유영주 (2009). 문화복지 개념 정립을 위한 질적 연구-휴먼서비스 실천가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0(2), 145-182.
- 홍경준 (2002). 한국 사회복지학계 연구방법론의 동향. *상황과 복지*. 13, 13-32.
- 홍경준 (2004). 빈곤에 대한 동태적 분석: 빈곤주기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4, 187-210.
- 홍경준·이태진·김문길·김사현·김선미·김태완·최옥금·최현수 (2009). 기초생활보장제도 현장보고서: 마지막 사회안전망에서 만난 사람들. 서울: 나눔.
- 홍현미라. (2011). 사회복지 거시실천에서의 질적 평가연구,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한 탐색.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3(3), 292-318.
- 황덕순 (2001).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에 대한 동태분석. *노동정책연구*. 가을호, 31-59.
- Adato, M., Carter, M., and May, J. (2006). Exploring Poverty Traps and Social Exclusion in South Africa using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Data.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42(2), 226-247.
- Alcock, P. (2004). The Influence of Dynamic Perspectives on Poverty Analysis and Anti-Poverty Policy in the UK. *Journal of Social Policy*. 33(3), 395-416.
- Barrett, C. (2004). Mixing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s of Analyzing Poverty Dynamics. SAGA Working Paper, March 2004.
- Bryman, A. (1988). *Quantity and Quality in Social Research*. Routledge. 홍동식·조정문·고승한 공역. (1992). *사회연구에 있어서 양적방법과 질적방법*. 전문출판사.
- Carvalho, S. and White, H. (1997). Combining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pproaches to Poverty Measurement and Analysis. The Practice and the Potential. Papers 366, World Bank - Technical Papers.
- Corden, A., and Millar, J. (2007). Time and Change: A Review of the Qualitative Longitudinal Research Literature for Social Policy. *Social Policy and Society*. 6(4), 583-592.
- Creswell, J. W. (199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s*. Sage Publications. 조홍식·정선욱·김진숙·권지성 공역. (2005). *질적연구방법론: 다섯가지 전통*. 학지사.
- Edin, K. and Lein, L. (1997). *Making Ends Meet: How single mothers survive welfare and low-wage work*. New York, NY: Russell Sage Foundation.
- Farrall, S. (2006). What is Qualitative Longitudinal Research? LSE Methodology Institute. Papers in Social Research Methods, Qualitative Series, Paper 11.

- Fine, M. and Weis, L. (1998). *The Unknown City: Lives of poor and working-class young adults*. Boston, MA: Beacon Press.
- Greenberg, D. and Cebulla, A. (2005). Report on a Meta-Analysis of Welfare-to-Work Program, Institute for Research on Poverty Discussion Paper no. 1312-05.
- Jick, T.D. (1979). Mixing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s: Triangulation in Actio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Qualitative Methodology*, 24(4), 602-611.
- Kakwani, N. and Silber, J. (ed.) (2007). *The Many Dimensions of Poverty*. New York, NY: Palgrave Macmillan.
- Lawson, D., Hulme, D., and Muwonge, J. (2008). Combin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to Further Our Understanding of Poverty Dynamics: Some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Multiple Research Approaches*, 2(2), 191-204.
- Lawson, D., McKay, A., and Okidi, J. (2006). Poverty Persistence and Transitions in Uganda: A Combine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is,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42(7), 1225-1251.
- Millar, J. (2007). The Dynamics of Poverty and Employment: The Contribution of Qualitative Longitudinal Research to Understanding Transitions, Adaptations and Trajectories, *Social Policy and Society*, 6(4), 533-544.
- Molloy, D. and Woodfield, K. with Bacon, J. (2002). Longitudinal Qualitative Research Approaches in Evaluation Studies,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Working Paper No. 7, London: HMSO.
- Newman, K.S. (1999). *No Shame in My Game: The working poor in the inner city*. New York, NY: Russell Sage Foundation.
- Njeru, E.H.N. (2004). Bridging the Qualitative-Quantitative Methods of Poverty Analysis, paper written for workshop on saga qualitative-quantitative methods for poverty analysis, March 11, 2004.
- OECD. (2001).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DAC) Guidelines-Poverty Reduction*, Paris, OECD.
- Padgett, D.K. (1998).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Challenges and Rewards*,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Inc.
- Seccombe, K. (1999). *So You Think I Drive a Cadillac?: Welfare recipients' perspectives on the system and its reform*, Needham Heights, MA: Allyn and Bacon.
- Park, C. and Lee, H. (2010). What Makes A Case Study Really Qualitative?: Show Me Your Evidence, Please! *English Teaching*, 65(4), 81-103.

- Rubbin, A. and Babbie, E. *Research Methods for Social Work*. (5th Edition). Thomson/Brooks.
- Ruspini, E. (1999). Longitudinal Research and the Analysis of Social Change. *Quality and Quantity*, 33. 219-227.
- Saldana, J. (2003). *Longitudinal Qualitative Research: Analyzing Change through Time*. Walnut Creek, CA: AltaMira Press.
- Saldana, J. (2011). *Fundamentals of Qualitative Research: Understanding Qualitative Researc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hipler, D.K. (2004). *The Working Poor: Invisible in America*, Vintage. 나일등 역. (2009). 워킹 푸어, 빈곤의 경계에서 말하다. 서울: 후마니타스.

A Study on the Methodological Preferences in Poverty Research Trend: Utilizing Qualitative Methods for the Study of Multidimensional Nature and Dynamics of Poverty

Jo, Joon Yong*

This study discusses the current trend of poverty research in Korea with special emphasis on revealing preferences in quantitative methods for the study of multidimensional nature and dynamics of poverty. Korea's poverty research trend has changed from the analysis of static poverty to dynamics poverty, of which trend was expedited by the establishment of quantitative panel data since the late 1990s. While the quantitative poverty research was successful in providing statistical generalization of determinants factors associated with in-and-out of poverty, it had some limitations in delivering the other side of poverty story, including individual experiences, insights into people's attitude, and the context of life changes. Recently, qualitative research has been recognized by its contribution to the holistic understanding of poverty which may leads to theoretical generalization. Qualitative method can also bridge the gap between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studies, and be combined with quantitative method to become a mixed method, which may strengthen both methods in a complementary way. In this perspective,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Hallym University(joyhallym@hallym.ac.kr)

utilizing qualitative longitudinal method based on qualitative panel data linked to Korean Welfare Panel Study(KOWEPS) could be an alternative way to balance methodological orientations under current strong quantitative positions in poverty research trend. Finally, this study explores qualitative-longitudinal inquiries that link to relevant research topics for multidimensional nature and dynamics of poverty.

Key Words: Poverty Research, Methodological Preferences, Quantitative Method, Qualitative Method, Mixed Method, Qualitative Longitudinal Research, Multidimensional Poverty, Poverty Dynamics

◆ 2012.11.15. 접수 / 2012.12.11. 1차 수정 / 2012.12.13. 게재 확정